

2/25/28

설교 제목: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0:1-21

-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 (롬 10: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롬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 (롬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절관주** 신 30:12
- (롬 10: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 (롬 10: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 (롬 10: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 (롬 10: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절관주** 사 52:7

-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 (롬 10: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절관주** 사 53:1
-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 (롬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절관주** 시 19:4
- (롬 10: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절관주** 신 32:21
- (롬 10: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절관주** 사 65:1
- (롬 10: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전장인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는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면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 구원을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데에 있어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 부분을 말합니다.

(롬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사도 바울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들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택한 그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롬 10: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롬 10: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1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으며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일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가 죄값으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얻어지는 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고로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위해 율법을 다 지켜내신 율법의 마침이 되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살려내시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 율법의 멍에를 다 지셨습니다.

한 점의 죄도 없는 분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율법을 다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롬 10: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롬 10: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롬 10: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인간이 의를 얻는 두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내서 의를 얻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내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롬 10: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십일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외워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가르켜 뭐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롬 10: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롬 10: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롬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천한 자도 병든 자도 공부를 못하는 자도 못생긴 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2 장 6 절은 말씀입니다.

(벧전 2: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삶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정령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롬 10: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롬 10: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롬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천한 모습으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천한 모습으로 온 예수가 자신들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떠나 믿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롬 10: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롬 10: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롬 10:21)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 32: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신하자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당신이 이방인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본디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한 이방인에게 구원의 손을 뻗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하여 결국은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 때가 지나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은 닫히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